

2013. 06. 18

Economist

문정희 02) 3777-8092

mjhsilon@kbsec.co.kr

Macro Insight

Contents

Focus chart	2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3
Macro Review	4
Macro Preview	5
Market Trend	6
Market Risk	7
[Appendices]	9

6월 FOMC, 금리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차단에 노력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판매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 등 생산활동 지표는 부진했으며, 6월 소비심리는 5월보다 하락했다. 금주에는 미국 주택시장 지표 발표와 6월 FOMC가 개최될 예정이며, 5월 주택시장 지표는 금리상승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전월치에 비해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6월 FOMC에서는 5월부터 상승한 장기채권금리에 대해 부정적 코멘트가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의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언급을 강화하여 시장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Macro Review – 미국 생산활동 부진 및 소비심리 약화

지난 주 발표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운송제외 0.3% 증가하여 전월치를 상회했으나 생산활동의 대표 지표인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 0.2% 증가를 하회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도 82.7포인트로 전월치 및 시장 예상치 84.5포인트를 하회했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확장국면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 않는 모습이다.

Macro Preview – 미국 주택시장 지표와 6월 FOMC 주목

금주에도 미국 경제지표와 이벤트가 주목해야 될 지표로 판단된다. 주중 발표될 주요 지표는 주택시장 지표로 건축허가 건수와 주택착공 건수, 기존주택판매 등이 있으며, 주 후반에는 5월 선행경기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기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주택시장은 전월치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18일과 19일에 걸쳐 개최될 6월 FOMC에서는 장기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연준의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정책기조를 재확인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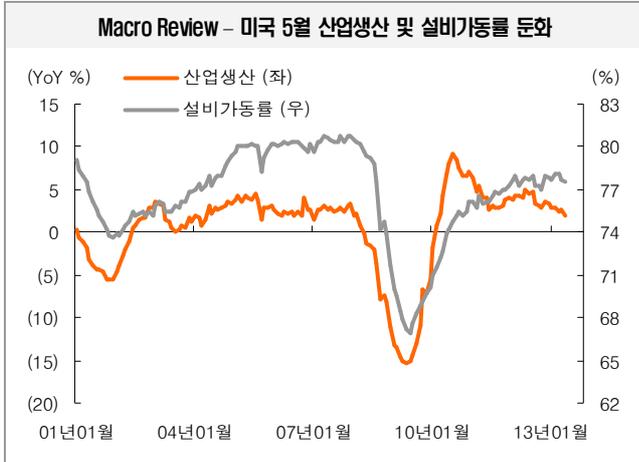
Market Trend – 미 달러화 및 아시아 통화의 약세 지속

달러/유로 환율이 1.33달러를 상회하며 달러화 지수는 하락했으나 반면 엔화는 강세를 기록했고, 국내 원화 등 아시아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시현했다.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엇박자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기채권금리는 다소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재고 감소와 달러유로 환율 상승으로 전 전주에 비해 상승했으나 금 선물 가격은 여전히 제한된 흐름에서 등락하고 있다.

Market Risk – 43.75%, 금리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 상승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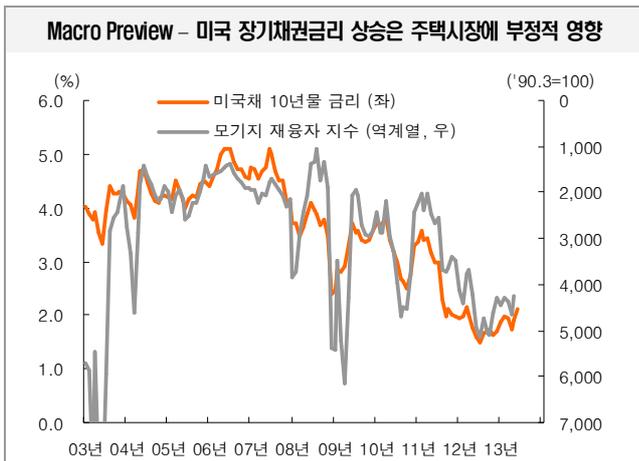
지난 주 주요국의 장기채권금리가 소폭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지난 주 엔화 환율은 안정적 수준에서 이탈하였다. 아직 다른 가격변수로 변동성이 전이되지는 않고 있으나 금리 변동성확대가 지속될수록 다른 가격변수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Focus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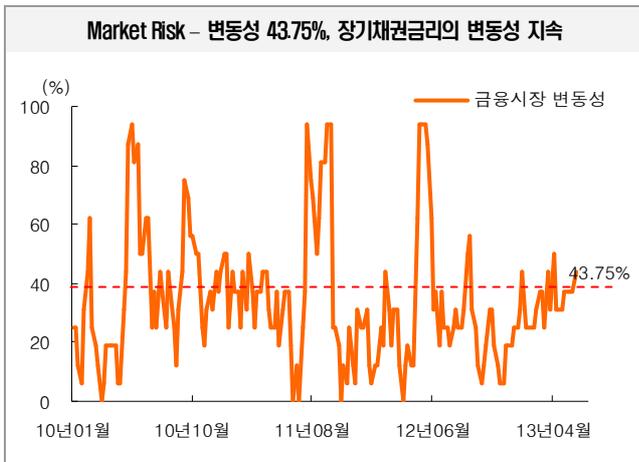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 5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에 포함. 예상치 하회
- 5월 미국 설비가동률은 77.6% 기록, 예상치 및 전월치 하회
- 결과: 미국 5월 생산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Comment: 전반적으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수 부진을 주도
- 향후 전망: 5월 미국 생산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오히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는 감소. 유틸리티 생산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제조업 생산은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 당분간은 횡보하는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미국 6월 FOMC, 채권금리 하락 안정을 위한 양적완화 지속 확인 예상
- 오는 18~19일, 6월 FOMC 개최 예정
- 예상: 경기판단은 전월과 유사한 회복국면 시사, 전망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채권금리의 부정적 영향 언급 예상
- Comment: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정책목표의 경제지표 개선세가 확인하지 않는 가운데 장기채권금리가 단기에 급등함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시장 금리 안정 유도, 양적완화 지속에 대해 재확인하는 코멘트가 발표될 전망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6월 2주차 금융시장 변동성 43.75%, 장기채권금리의 변동성 지속
- 전 전주에 이어 지난 주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장기채권금리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전 전주에는 엔화 환율이 비교적 안정 수준에 진입했으나 지난 주 하락폭이 확대되어 환율에서도 변동성이 상승함
- Comment: 금리 변동성 지속이 다른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나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을 상승시키고 있음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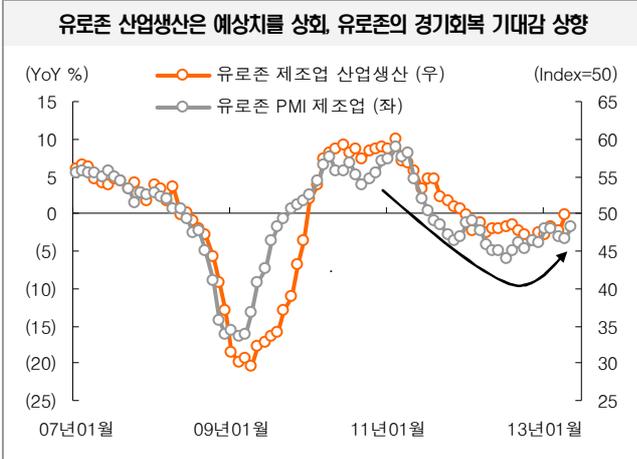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일자	경제지표	Index	전망	실제	이전	비고
5/31 (금)	일본 4월 전국 CPI (식품, 에너지 제외)	YoY %	-0.7	-0.6	-0.8	
	일본 4월 산업생산	YoY %	-3.2	-2.3	-6.7	
	유럽 4월 유로권 실업률	%	12.2	12.2	12.1	
	미국 4월 개인소비지수	MoM %	0.0	-0.2	0.1	
6/1 (토)	한국 5월 대외무역 수지	백만달러	2623	6026	2447	
	중국 5월 제조업 PMI	Index=50	50.0	50.8	50.6	
6/3 (월)	한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1.2	1.0	1.2	
	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	Index=50	51.0	49.0	50.7	
6/4 (화)	미국 4월 무역수지	십억달러	-41.1	-40.3	-37.1	
6/5 (수)	유럽 1Q13 유로권 GDP	YoY %	-1.0	-1.1	-1.1	속보치
	유럽 1Q13 유로권 가계소비	QoQ %	-	0.1	-0.6	속보치
	유럽 4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	-0.8	-1.1	-2.2	
6/6 (목)	유럽 6월 ECB 기준금리	%	0.50	0.50	0.50	
6/7 (금)	한국 1Q13 1분기 GDP 수정치	YoY %	-	1.5	1.5	수정치
	미국 5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천명	163	175	149	
	미국 5월 실업률	%	7.5	7.6	7.5	
6/9 (일)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2.5	2.1	2.4	
	중국 5월 산업생산	YoY %	9.4	9.2	9.3	
6/10 (월)	일본 1Q13 연간화 GDP	QoQ%, AR	3.5	4.1	3.5	수정치
	일본 4월 무역수지(BOP기준)	십억엔	-729.9	-818.8	-219.9	
	유럽 6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	Index=0	-11.3	-11.6	-15.6	
6/12 (수)	한국 5월 실업률	%	3.1	3.2	3.1	
	유럽 4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	-1.2	-0.6	-1.4	
6/13 (목)	한국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0	2.50	2.50	
	미국 5월 소매 매출 (운송 제외)	MoM %	0.3	0.3	0.5	
6/14 (금)	미국 5월 산업생산	MoM %	0.2	0.0	-0.4	
	미국 5월 설비가동률	%	77.8	77.6	77.7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Dec-64=100	84.5	82.7	84.5	속보치
6/17 (월)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50	45.0	52.0	44.0	
6/18 (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1.40	-	1.10	
	미국 5월 주택착공건수	천건	950.0	-	853.0	
	미국 5월 건축허가	천건	978.0	-	1005.0	
6/19 (수)	일본 5월 조정상품거래수지	십억엔	-864.0	-	-764.4	
6/20 (목)	미국 6월 FOMC 금리결정	%	0.25	-	0.25	
	중국 6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Index=50	49.4	-	49.2	
	유럽 6월 PMI 제조업	Index=50	48.4	-	48.3	추정치
	유럽 6월 PMI Composite	Index=50	48.1	-	47.7	추정치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Index=0	-21.5	-	-21.9	추정치
	미국 5월 경기선행지수	MoM %	0.20	-	0.60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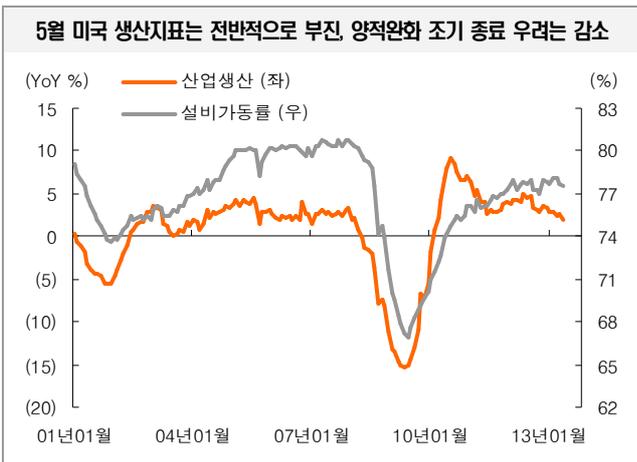
주: ()는 음수값

I. Macro Review – 미국 생산활동 부진 및 소비심리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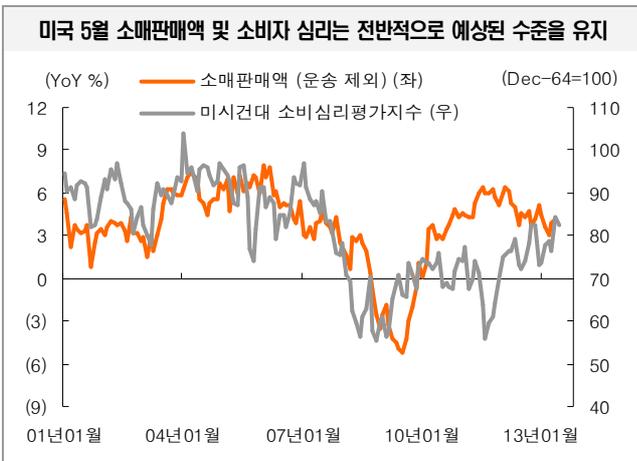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4월 유로존 산업생산 전년대비 0.6% 감소, 전월치 및 예상치 상회
- 4월 유로권 산업생산 전월대비 0.4% 증가, 예상치 상회
- 결과: 4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유럽 회복 기대감은 상향
- Comment: 4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 특히 제조업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08% 감소만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짐
- 향후 전망: 하반기 유로존 회복 기대감은 상향. 전반적으로 생산 및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 노동시장의 부진만 회복된다면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5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에 포함. 예상치 하회
- 5월 미국 설비가동률은 77.6% 기록, 예상치 및 전월치 하회
- 결과: 미국 5월 생산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Comment: 전반적으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수 부진을 주도
- 향후 전망: 5월 미국 생산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오히려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는 감소. 유틸리티 생산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제조업 생산은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 당분간은 회복하는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증가, 예상치 및 전월치 상회
- 5월 소매판매 (운송제외)는 전월대비 0.3% 증가, 예상치 부합
-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는 82.7pt 기록, 예상치 및 전월치 하회
- 결과: 미국 5월 소매판매는 전반적으로 예상치 및 전월치를 상회했으나, 6월 소비심리는 소폭 하락
- Comment: 5월 소매판매는 차량 및 건축·조경 자재 등의 판매 증가가 지수상승을 주도. 6월 소비심리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망: 불확실성 하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는 회복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판단. 소비회복지속 판단은 여전히 유효

II. Macro Preview – 미국 주택시장 지표와 6월 FOMC 주목

일자	경제지표	Index	전망	이전	당사 전망
6/18 (화)	미국 5월 소비자물가	MoM %	0.2	-0.4	예상 부합
	미국 5월 건축허가 건수	천건	976	1,005	예상 하회
6/19(수)	미국 6월 FOMC 금리결정	%	0.25	0.25	예상 부합
6/20(목)	미국 5월 기존주택판매	백만호	5.00	4.97	예상 하회
	미국 5월 경기선행지수	MoM %	0.2	0.6	예상 부합

금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를 먼저 예상해보면 전월치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하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시장 예상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허가와 주택 판매 등의 주택시장 지표는 예상치를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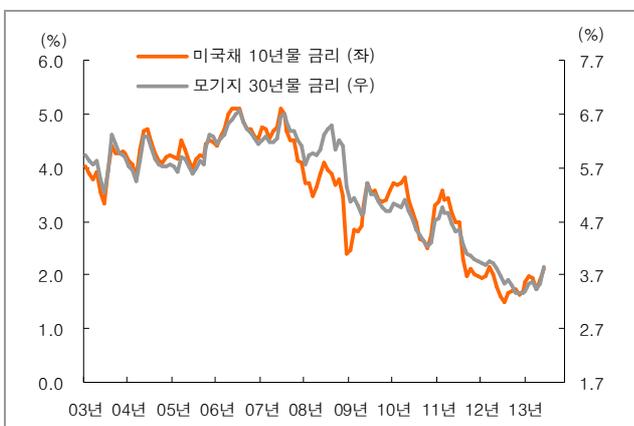
5월에 장기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라 모기지 금리 상승 및 모기지 신청지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 모멘텀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가 단기에 급등함으로써 주택시장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선행지수는 5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와 유사하게 전월대비 0.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FOMC에서는 의사록에 삽입된 문구와 회의 이후 발표될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월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신흥국의 증시 조정, 미국 내부적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 등이 나타나고 있어 연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FOMC 의사록이나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채권금리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우려하는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종료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이며, 현 수준의 양적완화 지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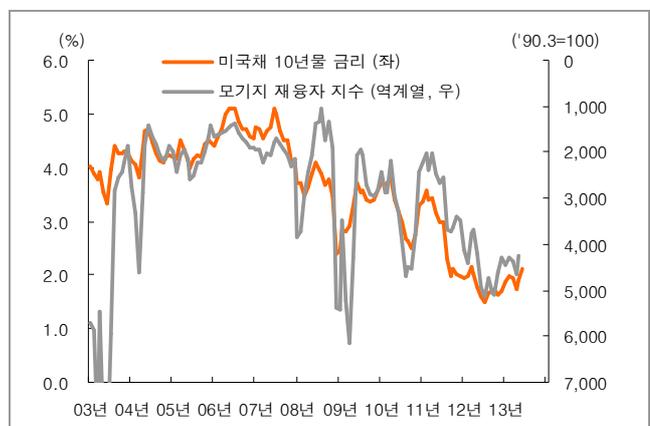
FOMC 의사록이나 버냉키 의장의 금리안정 코멘트에 대한 강도가 강화될수록 시장 금리는 다소 하락 안정할 것이며,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종료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 (1.7%p 차감)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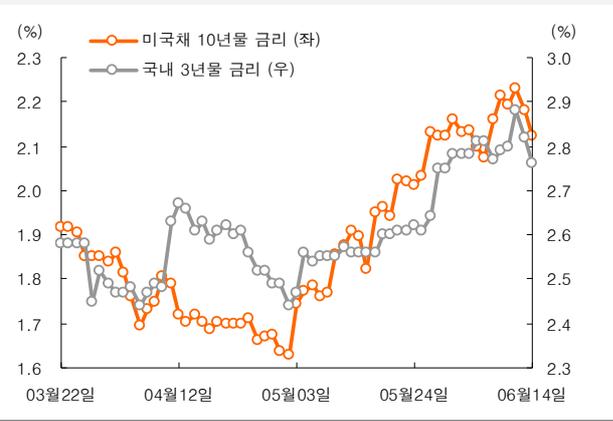
그림 2. 장기채권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채용자 지수는 하락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III. Market Trend – 미 달러, 아시아 통화 약세 지속 (6/14중가 기준)

Interest rate –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으나, 변동성 확대에 유의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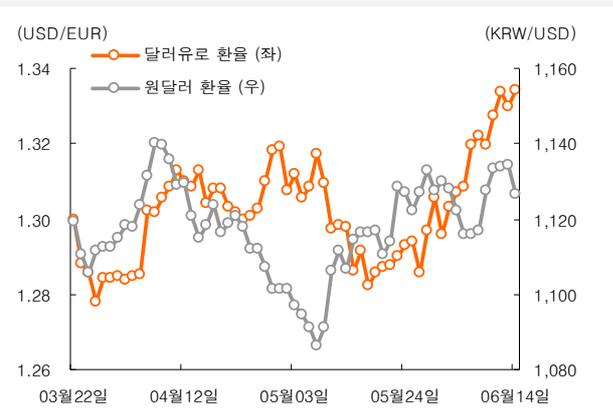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2.1233%, 전주 말 대비 -0.036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76%, 전주 말 대비 -0.01%p

- Comment & Preview: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주중 국채 입찰 수요 약화로 대폭 상승했으나, 양적완화 조기종료 우려가 약화되면서 하락 마감. 국내 국고채 금리는 주중 장기 채권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으로 급등했으나, 이후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하락.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Preview]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2.08~2.20%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72~2.82%

Exchange rate – 유로화 경제 회복 기대로 상대적 강세, 원화 약세는 지속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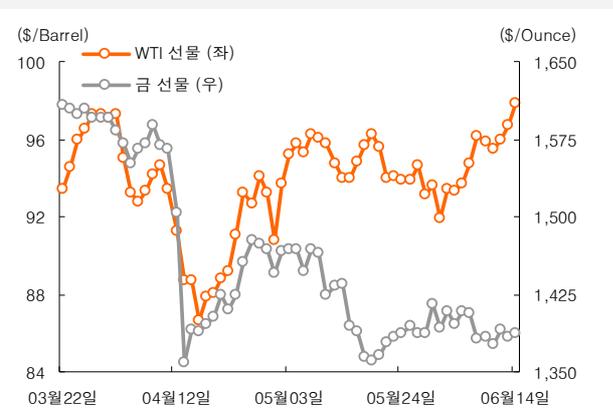
달러/유로 환율 1.3340달러, 전주 말 대비 +0.0119달러
 원/달러 환율 1,126.55원, 전주 말 대비 +9.47원

- Comment & Preview: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로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 엔/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과 BOJ 통화정책 실망감으로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약세, 미국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상대적 달러 강세 영향으로 전주 말 대비 9.47원 상승 기록

[Preview]

달러/유로 환율 1.33~1.35 달러
 원/달러 환율 1,120~1,140 원

Commodity – 유가 상승은 지속, 금 가격은 강보합세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Review]

WTI 선물 배럴당 97.83달러, 전주 말 대비 +1.72달러
 금 선물 온스당 1,386.80달러, 전주 말 대비 +5.12달러

- Comment & Preview: 국제유가는 시리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수급 우려,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 금 선물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강보합 마감. 금주 국제유가 및 금 선물은 강보합세를 보이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Preview]

WTI 선물 배럴당 97.0~100.0달러
 금 선물 온스당 1,380~1,410달러

IV. Market Risk – 43.75%, 시장 변동성 상승에 영향

구분	내용	지난 주	2주 전	4주 평균
장기채권 금리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국내 장기채권금리 상승	80.0%	80.0%	60.0%
환율	엔화 환율 하락을 제외하고 미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원화 안정	20.0%	0.0%	25.0%
주가	역시 니케이 증시를 제외하고 주요국 증시는 표준편차 이내 흐름	20.0%	20.0%	20.0%
원자재	금 선물의 조정 지속, 원유 및 곡물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	20.0%	20.0%	20.0%
금융시장 종합	금리 변동성 우려는 여전, 아직 다른 변수로 전이되지는 않음	43.75%	37.50%	39.06%

지난 주에 이어 금융시장에 채권금리의 변동성 상승이 전체 시장의 변동성에 상승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유럽,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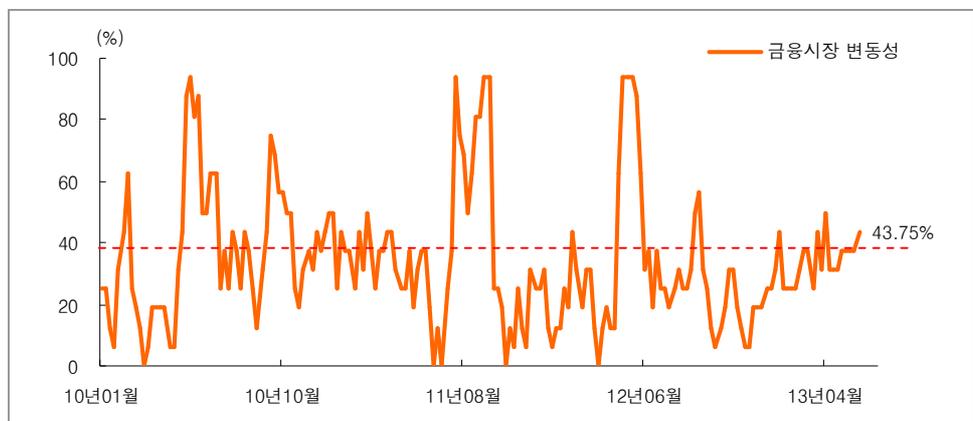
환율에 있어서는 엔화 환율의 조정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증시에 있어서는 니케이 증시의 변동성이 안정적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난 주 국내 원화 환율도 1,134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고, KOSPI 지수도 약 1.8% 하락하며 조정 영향을 받았으나 아직은 주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금 선물 가격이 여전히 조정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유나 곡물 등의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이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다른 가격변수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금리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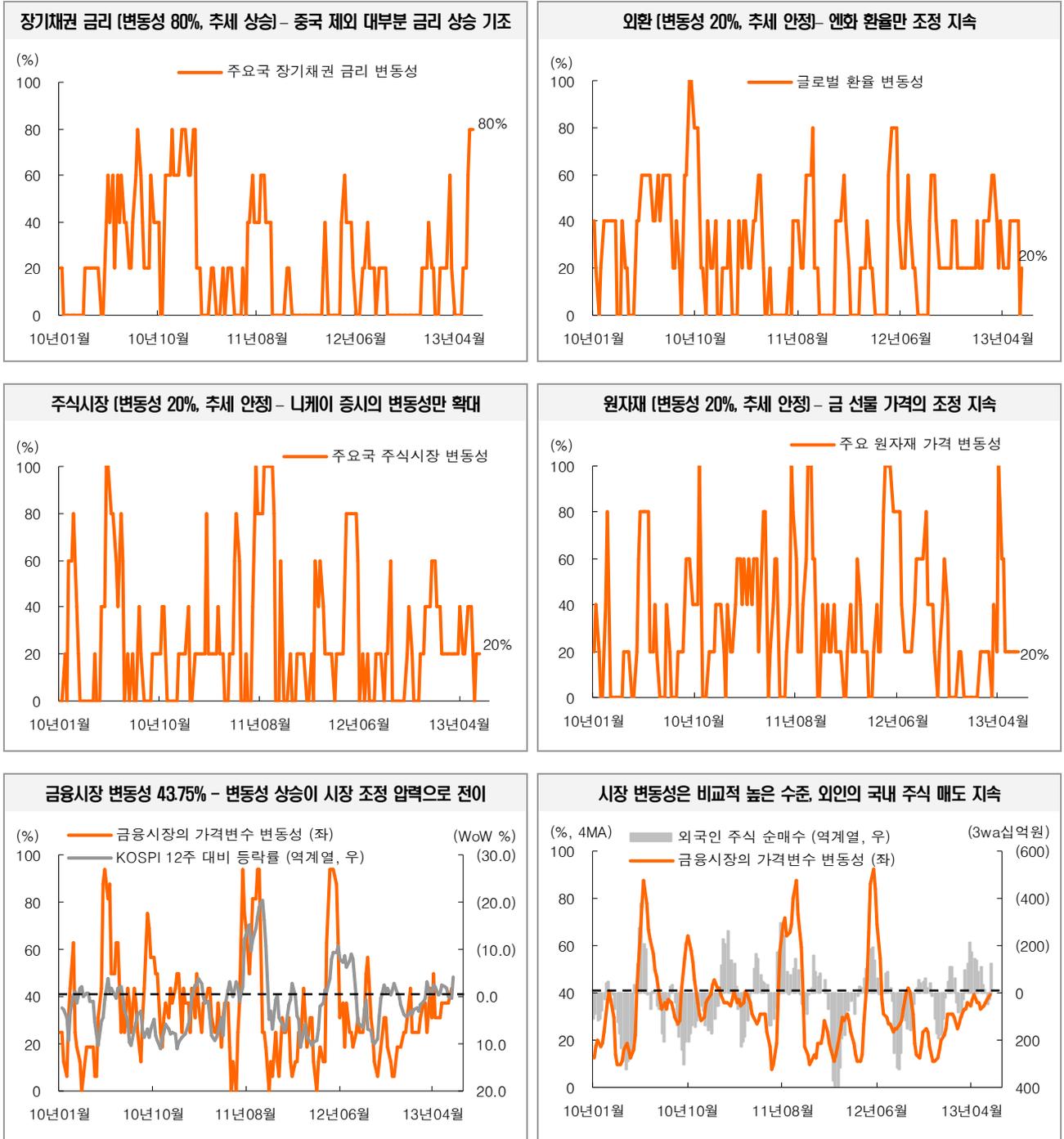
최근 신흥국의 통화 약세와 주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났고,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6월 2주차 금융시장 리스크 43.75% - 금리 변동성 우려는 여전, 아직 다른 가격변수로 전이되지는 않아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의 주간 변동성(Risk) 추이



* 금융시장 변동성: 2010년 1월 1일 이후 각 가격변수의 주간 데이터를 이용, 12주 표준편차 대비 현 가격변수의 이격 여부에 따라 변동성을 부여.

- Bond: US Govt 10yr rate, EU Govt 10yr rate, Japan Govt 10yr rate, China Govt 7yr rate, Korea Govt 3yr rate

- FX: Dollar index, USD/EUR, JPY/USD, CNY/USD, KRW/USD

- Security: S&P500 index, Stoxx50 Index, Nikkei 225, Shanghai Composite Index, KOSPI Index

- Commodity: CRB index, LME index, WTI Futures, Dubai spot, Gold spot

Logic 참조: http://bbs.kbsec.co.kr/upload/nboard/research/20130207_B_kb1700_16.pdf

[Appendices A.]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일
27	28	29	30 韓 4월 광공업생산 (Y) [1.7 / -3.0]	31 日 5월 핵심 소비자물가 (Y) [-0.6 / -0.8]	[6/1]/2 韓 5월 무역수지 (백만달러) [6,026 / 2,447] 中 5월 제조업 PMI [50.8 / 50.6]
3 美 5월 ISM 제조업지수 [49.0 / 50.7]	4	5 EU 1Q13 GDP (Y) [-1.0 / -1.1]	6 EU 6월 ECB 금리 공시 [0.50 / 0.50] ECB 통화정책회의	7 美 5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175K / 149K] 美 5월 실업률 [7.6 / 7.5] 미-중 정상회담 (7-8)	8/9 中 5월 무역수지 (십억달러) [20.43 / 18.16] 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 [2.1 / 2.4] 中 5월 산업생산 (Y) [9.2 / 9.3]
10	11 BOJ 금융정책회의	12 EU 4월 산업생산 (Y) [-0.6 / -1.4]	13 BOK 금융통화위원회	14 美 5월 산업생산 (M) [0.0 / -0.4] 美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82.7 / 84.5]	15/16
17 美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52.0 / 44.0]	18 FOMC	19 日 5월 조정상품수지(십억엔) [-891.4 / -764.4] FOMC	20 EU 6월 PMI Composite [48.1 / 47.7]	21	22/23
24	25	26 한-중 정상회담 (예정)	27 EU 정상회담 (27-28)	28 韓 5월 광공업생산 (Y) [- / 1.7] 日 5월 핵심 소비자물가 (Y) [- / -0.6] 日 5월 산업생산 (Y) [- / -]	29/30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주: 1) (M) 전월비 증감률, (Q) 전기비 증감률, (Y) 전년비 증감률, (A) 연율화

2) 경제지표 발표 이후 [결과치 / 전기치] 경제지표 발표 이전 [예상치 / 전기치]

[Appendices B.] 국가(지역)별 주요 경제지표 결과

Korea Economy								
경제지표	Index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산업생산	YoY%	7.7	(9.5)	(2.9)	1.7			
출하	YoY%	7.0	5.6	3.9	3.3			
재고	YoY%	7.0	5.6	3.9	3.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Index=100	99.8	99.6	99.5	99.6			
소매판매	YoY%	(2.7)	1.6	1.7	2.2			
국내 기계수주	YoY%	(3.4)	(33.6)	14.4	2.5			
국내 건설수주	YoY%	(52.7)	(47.0)	(20.7)	(20.6)			
소비자물가 (CPI)	YoY%	1.5	1.4	1.3	1.2	1.0		
생산자물가 (PPI)	YoY%	(1.6)	(1.6)	(2.4)	(2.8)			
총유동성(L)	YoY%	8.1	8.2	7.1	7.6			
실업률 (계절조정)	%	3.2	3.5	3.2	3.1	3.2		
월간 신규고용	천 명	(348)	(70)	530	589	295		
수출	YoY%	10.9	(8.6)	0.1	0.4	3.3		
수입	YoY%	4.0	(10.5)	(2.1)	(0.3)	(4.9)		
무역수지	억 달러	4.7	19.7	32.4	24.5	60.0		
경상수지	억 달러	23.3	27.1	49.3	39.7			
소비기대지수	Index=100	102	102	104	102	104		
BSI 업황	Index=100	69	68	71	73	73		

U.S. Economy								
경제지표	Index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산업생산	YoY%	2.0	2.3	3.0	1.8	1.6		
설비가동률	%	77.7	78.1	78.1	77.7	77.6		
내구재주문 (운송제외)	YoY%	3.5	1.7	(0.8)	1.1			
경기선행지수	2005=100	94.2	94.6	94.4	95.0			
PCE 물가	YoY%	1.3	1.4	1.0	0.7			
소비자물가	YoY%	1.6	2.0	1.5	1.1			
통화량(M2)	YoY%	6.2	5.5	5.8	6.3			
가처분소득	YoY%	0.3	0.8	0.9	1.0			
개인소비지출 (PCE)	YoY%	2.0	2.0	2.2	2.1			
소매판매	YoY%	4.5	4.3	3.2	3.7	4.3		
월간 신규 고용	천 명	148	332	142	149	175		
실업률	%	7.9	7.7	7.6	7.5	7.6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	47	46	44	41	44	52	
무역수지	억 달러	(426.9)	(438.4)	(371.3)	(402.9)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1966=100	73.8	77.6	78.6	76.4	84.5	82.7	
ISM 제조업 지수	Index=50	53.1	54.2	51.3	50.7	49.0		
ISM 비제조업 지수	Index=50	56.4	56.9	56.5	55.0	56.5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EU (EMU) Economy

경제지표	Index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제조업 생산	YoY%	(2.8)	(2.2)	(2.9)	(0.3)			
건설 제외	YoY%	(2.7)	(2.9)	(1.6)	(0.6)			
소매판매	YoY%	(1.8)	(1.8)	(2.4)	(1.3)			
소비자물가	YoY%	2.0	1.9	1.7	1.2	1.4		
실업률	%	12.0	12.1	12.1	12.2			
통화량(M3)	YoY%	3.5	3.1	2.6	3.2			
무역수지	억 유로	91.5	127.3	186.9				
소비신뢰지수	Index=0	(23.9)	(23.6)	(23.5)	(22.3)	(21.9)		
산업동향지수	Index=0	(13.4)	(11.1)	(12.3)	(13.8)	(13.0)		

Japan Economy

경제지표	Index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산업생산	YoY%	(7.1)	(5.1)	(5.4)	(3.7)			
설비가동률	%	86.0	86.6	85.9				
경기선행지수	2005=100	95.1	97.5	98.0	99.3			
소매판매	YoY%	(1.1)	(2.2)	(0.3)	(0.2)			
가계소비지출	YoY%	1.6	1.0	4.0	0.0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YoY%	(0.2)	(0.3)	(0.5)	(0.4)			
통화량(M2+CDs)	YoY%	2.7	2.9	3.1	3.2	3.4		
실업률	%	4.2	4.3	4.1	4.1			
무역수지	십억 엔	(726.3)	(1094.1)	(919.8)	(764.4)			
소비기대지수	Index=50	43.2	44.2	44.8	44.5	45.7		
경기업황지수	Index=50	49.5	53.2	57.3	56.5	55.7		

China Economy

경제지표	Index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산업생산	YoY%			8.9	9.3	9.2		
경기선행지수	2000=100	100.8	100.3	100.0	99.8			
소비자물가	YoY%	2.0	3.2	2.1	2.4	2.1		
생산자물가	YoY%	(1.6)	(1.6)	(1.9)	(2.6)	(2.9)		
신규 은행대출	억 위안	10856.9	6199.9	10625.4	7923.0	6674.2		
통화량(M2)	YoY%	15.9	15.2	15.7	16.1	15.8		
도시 고정자산 투자	YoY%		21.2	20.9	20.6	20.4		
부동산 개발 투자	YoY%		26.1	24.1	24.4	23.6		
해외직접투자(FDI)	YoY%		(4.1)	6.3	(0.2)	(4.7)		
수출	YoY%	25.0	21.8	10.0	14.7	1.0		
수입	YoY%	28.8	(15.2)	14.1	16.8	(0.3)		
무역수지	억 달러	291.5	152.3	(8.2)	181.6	204.3		
소비기대지수	Index=100	104.5	108.2	102.6	103.7			
PMI 제조업	Index=50	50.4	50.1	50.9	50.6	50.8		

자료: Datastream, KB투자증권

국민의 내일에 투자합니다



☑ **본사 및 지점망**

고객만족센터 1599-7000/1544-6000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7, 21, 22, 23F	02) 3777-8000
울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울촌빌딩 2, 4, 5F	
압구정 PB 센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7-3 LG패션 서관 3층	02) 2096-3004
도곡 PB 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 빌딩 1층	02) 2096-3014
잠실중앙지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갤러리아팰리스 2층	02) 2096-3024
서현역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빌딩 2층	031) 8017-8614
목동 PB 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6 KB국민은행 빌딩 2층	02) 2096-3044
여의도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KB국민은행 영업부 내	02) 2096-3054
강남스타PB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GFC빌딩 21층	02) 2096-3064
명동스타PB센터	서울시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 서관 32층	02) 2096-3074
무역센터지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2층	02) 2096-3084
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 국민은행빌딩 3층	031) 476-8145

현재 당사는 상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주)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